

우리몸의 건강 관리



제공:보건사회부

간염 의 예방

인간에 간염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존재하는 바이러스들을 포함해서 30여종에 이른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Togaviridae, Arenaviridae, Herpetoviridae, Picornaviridae, Adenoviridae로 명확히 분류된 것들과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간염(Hepatitis)바이러스 A형, B형, (non-A, non-B)형 등이 있다.

분류학상으로 A형은 Picornaviridae에 B형은 Ebola/ Marburgvirus 와 함께 분류되지 못한채 Unclassified group에 속한다. C형은 항원성 즉 혈청학적 소견만이 밝혀졌기 때문에 바이러스로서 확실한 증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C형이라는 분류마저 통일된 견해는 없다.

위와같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많은 감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임상적으로나 역학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고있는 Hepatitis A, B, C Virus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Virus간염의 역학적 제특성으로부터 이 질병의 자연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 그중 검출방법은 팔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와 바이러스간염의 자연사 규명에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A형 간염의 경우는 항원, 항체 및 병원체에 대한 검사법이 1975년경에야 개발되었는데 아직도 B형 간염의 경우에 비해서는 정확도나 종류의 다양성이 적어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며, B형 간염의 경우는 1969년 이래 진단방법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기존개념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따라서 역학적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에 있어서 특히 바이러스 간염의 경우는 연구에 사용된 검사방법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 발생규모나 역학적 양상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는 않지

만 최근 국립보건원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공혈자나 외래환자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조사자중 B형 간염 양성율이 5~10%로서 미국을 비롯한 구미제국이 0.1%, 이웃 일본이 1.0%인데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1. 바이러스 간염의 특성

가. A형 간염

A형 간염은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성보균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급성기의 환자만이 나타나고 있다. B형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연속적 전파에 의해서만 간염바이러스가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fecal-oral 성의 접촉에 의한 전파가 주된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나. B형 간염

B형 간염은 근년에 들어 수혈, 주사기회 등의 급증등으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이미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인간에 아주 잘 적응된 질환으로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데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적 경과를 밟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병원소도 급성기의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보균자가 큰 역할을 한다.

인구집단에서는 항상 감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정비율의 급성 혹은 만성 보균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보균자의 체액 및 분비물이 감염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의 전파는 A형보다 매우 용이하게 된다.

2. 바이러스 간염의 증세

간염에 이환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열, 전신권태, 식욕부진, 오심, 분명하지 않은 복통 등이 심하며 수일후 황달증세가 나타난다. 때로는 설사증세도 나타난다.

증상이 감기기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방치하기 쉽고 B형 간염의 약 10% 정도는 간경변, 간암 등 급성간염으로 전환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국민에게서 A형 간염에 폭로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임상적 간염으로 발현되는 율은 3~5%밖에 안되며 일단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98% 정도는 완전히 회복된다.

B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의 약 30~40%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급성간염으로 이행되며 감염된 환자의 최소한 50% 정도는 임상적 소견을 보이지 않는 불현성 감염으로 남게 된다.

한편 감염후 만성보균자로 이행되는 경우는 전체감염의 5~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상대적 빈도는 몇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침입 경로가 경주적인 경우는 급성간염으로 되는 비율이 더 높으며 남자의 경우는 여자에 비하여 급성 간염이나 만성간염으로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형과 B형 간염의 특성비교표

| 구 분 | | A형간염 (유행성간염) | B형간염 (혈청간염) |
|---------------|-------------------------------|--|--|
| 전 과 경 로 | | ○ 경구 감염 ○ 오염된 식품 또는 물 (분뇨, 혈액) | ○ 주로 비경구적 (수혈, 주사침, 한방의침, 수술, 면도등) ○ 경구적 감염 - 타액, 콧물, 노, 분변, 정액, 질분비물 등 액체 ○ 기타 모기, 빈대등 흡혈 곤충에 의한 전파 |
| 임 상 증 상 | ○ 공통 ○ 발열 ○ 황달 ○ 발현율 | ○ 무기력, 오심, 구토 ○ 갑작스런 발열 ○ 성인 : 1 : 1 ○ 어린이 : 1/12 | ○ 좌동 ○ 흔하지 않음 ○ 1/100 |
| 잠 복 기 간 | | ○ 15~49일 | ○ 70~75일 |
| 감 염 율 (항원보유율) | | ○ 미상 | ○ 약 10% |
| 항체지속기간 | | ○ 종신 (?) | ○ 종신 (?) |
| 치 명 율 | | ○ 0.1% 이하 | ○ 1% 이하 |
| 만 성 화 | | ○ 없음 | ○ 5~10% (이중 간경화 10%, 간암 10%) |
| 계절발생빈도 | | ○ 연중이나 가을과 겨울이 높음 | ○ 연중 |
| 열 지 항 성 | | ○ 100℃에서 1분이면, 감염력이 소실됨 | ○ 섭씨 100℃에서 1분이면 감염력이 소실되나, 단백질내에 있는 바이러스는 열 저항성이 높아 고압멸균을 요함. |
| 소독약제저항성 | | | ○ Povidone-Iodine Formalin Sodium Hypochlorite 에 약함. |

A형 간염은 급성증상을 나타내나 치료가 쉬우며 한번 이환된 후면 면역이 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연령에 구별없이 발생하는 B형 간염은 대개의 경우 만성증세를 나타낸다.

3. 전파양식

간염은 전파경로가 다양하고 건강보균자가 많으며 잠복기가 비교적 길어서 대부분 경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염되었는지 자신도 모를 때가 많다.

A형 간염바이러스는 분변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의 분변에 직접 접촉하

든지 손가락이 분변에 간접적으로 오염되는지, 오염된 주방기구나 식기에 간접적으로 접촉되면 입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킨다.

B형 간염으로 진단되었을 경우는 이미 주위사람이 걸려 있거나 과거에 앓은 일이 있는 상태이다.

B형 간염바이러스는 체액분비물인 혈액, 대변, 소변 비인후강 분비물 및 타액과 정액, 질분비물 및 월경혈 등에서 발견되는데 수혈, 주사, 성적접촉이나 문신등을 통하여 병·의원의 침이나 오염된 처치기구에 의해서 전염된다. 특히 혈액 투석실근무자, 치과 의사, 간호원 등은 감염되기 쉬운 집단이다.

비A형, 비B형의 전파경로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수혈이 중요한 경로로 알려지고 있다.

4. 잠복기

A형 감염은 15~49일이며 B형 간염은 70~75일로 확인되고 있다.

5. 예방대책

환경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대변처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혈액, 혈청, 혈장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용될 수 있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으로 진단될 때 그 환자가 가족에게 예방법을 알아두어 더 이상 주변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염되기 쉬운 위생환경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임산부 및 어린이들은 감염에 걸릴 경우 피해가 큰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초기에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다.

A형 간염은 개인위생만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집단수용소, 학교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날음식과 끓이지 않은 물을 삼가며 술잔이나 물컵은 여러사람이 돌려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보균자의 혈액, 소변, 대변, 침, 정액, 땀 등 분비물 등에 묻어 다른 사람의 입과 피부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면도날, 칫솔, 손톱깎기 등을 같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급성기 환자는 성관계도 피해야 한다. 감염된 자는 주사바늘에 묻어 전염되기도 하므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한다. 간염은 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 이외에도 알콜농도가 높은 술을 장기간 마시면 간에 손상을 입혀 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민이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접촉자 및 특정시설 종사자는 가급적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여부를 확인검사한다.
- 음료수는 소독후 음용한다.
- 모기, 빈대등 흡혈곤충을 구제한다.
- 문신을 금한다.

나. 유관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1) 병·의원 등

- 각종기자재를 고압멸균소독하거나 자외선살균처리한다.
- 주사기를 고압멸균소독하거나 1회용 주사기사용을 의무화한다.
- 오염혈청의 공혈을 금한다.
- 기왕력자 또는 약물중독자의 공혈을 금한다.
- 혈청제제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환자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 환자용 물품(식기류등)을 철저히 소독한다.
- 입원실내의 흡혈곤충을 구제한다.

2) 치과의원

- 사용기자재를 고압멸균소독하거나 자외선 또는 약제살균처리한다.
- 주사기를 고압멸균소독하거나 1회용 주사기사용을 의무화한다.

3) 한방병·의원 침구시술소

- 침구류를 고압멸균소독하거나 자외선 또는 약제살균처리한다.

4) 식품접객업소

- 식기류, 수저, 컵, 행주, 물수건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용액으로 세척한 후 자비소독한다.
- 도마 등은 자외선살균처리한다.
- 사용수는 가급적 자외선 살균처리시설 설비를 권장한다.

5) 이·미용업소

- 1회용 면도기사용을 권장한다.
- 반복사용하는 경우는 고압 멸균소독 또는 자외선살균처리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자비소독한다.

6) 숙박업 및 목욕업소

- 공중목욕장내 면도기 비치를 금하고 면도기 사용희망자는 1회용 면도기를 제공한다.
- 가급적 심한 때밀기를 지양한다.

7) 혈액원

- 공혈자를 등록관리하고 검사를 강화한다.
- 기왕력자, 약물중독자를 포함하여 오염혈액채혈을 금한다.